



전국 닭질병 방역 순회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본회는 지난 5월 15, 18, 21일 각각 충북 음성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삼성생명전주연수소, 제주 칼호텔에서 3회에 걸쳐 '전국 닭 질병 방역 순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총 650여명의 양계인 및 관련인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홍기성 사무관은 정부 방역 시책, 방역본부 지경섭 팀장은 초동방역팀 운용 및 모니터링 검사의 의의, 검역원 최강석 박사는 ND 예방대책, 건국대 송창선 교수는 뉴모바이러스 예방대책, 인터베티코리아 정찬이 수의사는 CAV 예방대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관련기사 78페이지 참조).

제1차 육계자조금 대의원회 사업계획(안) 논의

지난 6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2년만에 제1차 육계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가 개최되었다 이날 70명의 대의원의 참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회의를 진행했다. 사업계획(안)의 계획으로는 소비홍보 5억5천만원, 교육 및 정보제공의 6억3천5백만원, 조사연구에 1억9천만원, 총 16억원의 사업계



획(안)이 의결되었으며, 사업계획(안)은 농식품부의 최종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농식품부의 김영만 사무관은 "어렵게 추진되는 육계자조금인 만큼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육계자조금사업의 미참여 농가와 비협조적인 계열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장치를 통해 패널티를 주기로 했으며, 자조금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제2차 산란계자조금 대의원회 사업계획(안) 및 추진방향 논의



본회는 지난 13일 제2차 산란계자조금 대의원회를 대전농협유통센터에서 개최해 산란계자조금 사업계획(안)과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과 세입·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48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계란의 소비홍보를 위해 교육 및 정보사업을 제공해 직접적인 정보전달로 산란계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추진목표로 계획했다. 이어 일반인과 소비잠재력이 높은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기 교육 및 올바른 정보 전달로 안정적인 산업기반 기틀을 다지기로 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사업으로 계란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계란소비를 높이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가거출금은 9억6천만원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총 19억2천만원의 금액을 조성했으며, 사업계획(안)의 소비홍보(3건)에 11억4천만원, 교육 및 정보제공(10건)에 4천8백만원, 조사연구(2건)에 1천3백만원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제2차 이사회 개최

검정연구소 운영방안 등 논의



제2차 이사회가 지난 20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 주요업무 추진 및 직원변동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검정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주요업무추진 상황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양계자조금 추진현황 등 주요 내용이 다루어 졌으며, 검정연구소 운영에 대

해서는 차후 부지매입부터 부지이전, 시설확보, 검정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해 가기로 논의가 있었다.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제규정 개정(안), 양계인 대회 추진, 임원협찬금 협조(안), 18대 임원 일부 변경(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제규정 개정(안)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삽입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키로 하였으며, 양계인 대회와 관련해서는 9월 18일경으로 개최날짜를 잠정적으로 확정하였으며, 경북 상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경북도지회에서 적극 협조키로 하였다. 한편, 송인환 이사가 경북도지회장으로 선출되고, 이인영 이사가 사의를 밝힘에 따라 결원된 종계이사에 대해서는 종계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추천받기로 하였으며, 충남도지회 박태원 지회장이 신임 이사로 선출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료가격 하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단체협의회와 함께 가격하락을 사료업계에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제3차 회장단 회의

양계 현안문제 및 개선방안 논의

지난 4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장단 회의(회장 이준동)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09년도 주요사업현안을 논의했다. 종계 난계대질병 청정화, 산란계 유통개선, 백세미 근절, 육계 계약사육, 질병세미나 개최, 양계인대회 개최, 유통구조통계조사사업 등의 현안문제와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오는 10월 8일에 상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양계인대회"는 계란·닭고기 소비촉진 행사, 계란·닭고기 요리 시식회, 건강식품으로서 양계산

물의 우수성 홍보, 콜레스테롤·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양계산물에 대한 오해 불식 등의 행사와 함께 개최기로 하였다.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문제점 및 대책방안 강구



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양계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 중 하나인 종계 난계대질병의 청정화는 방역조건이 완벽하게 갖춘 허가된 시설에서만 시행하도록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토록 농식품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단계적으로 병아리등급제 시행을 검토해 종란 관리가 시급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계란 유통구조개선 현안 중 상인들의 일방적인 할인(D/C) 폭이 커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는 난가를 현실에 맞도록 조사발표하는 방안과 사육수 수 조절, 산란실용계에 생산쿼터제 도입, 산란계자조금을 통한 직접적인 수급조절의 현안을 토의했다. 그리고 계약사육의 일방적인 계약서 문제, 불량 병아리 문제, 사료의 품질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백세미 근절방안에 모계를 종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체품종 개발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채란분과위원회

난가 현실화 방안 모색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천강균)가 지난 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금년 11월 산란실용계 생산 잠재력은 2,865천수로 전년동월(2,343천수) 대비 17.7%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노계도태가 필요한 시점이라 전했다. 현재 난가가 상인주도에 결정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큰 폭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협의를 추진키로 하였다. 앞으로 진행될 산란계의무자 조금 시행을 앞두고 회원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로 할 것이며, 한편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보다 지역 목소리를 본회에 집중시키기 위해 위원의 참석율을 높일 것이라 밝히고 협회 소속 채란지부를 분과회의에 참여시키기로 함에 따라 도지회 소속 채란분과위원회의 참석을 독려하기로 했다.

육계분과위원회

병아리 품질문제 제기

5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20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아리 가격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서 농가에 공급되는 병아리의 품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이는 하반기 난계대 질병 퇴치를 위한 종계장 조사사업과 연계하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이 대의원회를 통해 통과되면서 대농가 홍보 등을 통해 조기에 자조금이 거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유통구조 통계조사사업 건, 친환경 인증개선 건, 2009 전국양계인대회 개최건 등 현안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종계분과위원회

종란판매 표준계약서 최종심의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가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양계계열화사업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계약의무, 사료, 계약해지 등을 다룬 종란판매 표준계약서는 이날 최종심의 하였으며, 심의한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계열사와 의견 조율을 위해 업체 방문키로 하였다. 한편 양계관련 통계자료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하기 위해 진행할 유통구조 통계조사사업에 대해 기본조사항목을 포함해, 생산, 질병, 유통, 제도분야 등 종계·부화업 조사항목의 세부계획을 수립키로 하였다.

직원 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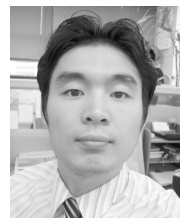
그 동안 본회에서 근무해 온 조종수 소장(검정연구소), 전현수 부장(검정연구소), 기영훈 대리(경영지원부)가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면직하였다. 조종수 소장은 1986년에 입사해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협회 총무와 종계업무 책임자로 지내왔고, 최근 안성 소재 검정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전현수 부장은 1982년도에 입사해 홍보부에서 월간양계 광고담당자로 활동해 왔으며, 최근 검정연구소 부장직을 맡아왔다. 한편, 기영훈 대리는 2005년에 입사해 월간양계 기자 활동과 양계자조금 및 채란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 조종수 소장



▲ 전현수 부장



▲ 기영훈 대리

지회 · 지부 소식

제주도지회

김해규 지회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본회 제주도지회 김해규 지회장은 지난 21일 제주 칼호텔에서 전국 닭질병 세미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림부 장관상을 받는 영광을 얻었다. 김해규 지회장은 본회 지회장으로 활약하면서 제주도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홍기성 사무관이 장관을 대신해 상을 전달하였다.



▲ 김해규 지회장

당진종계지부

현판식 개최



당진종계지부(지부장 신현민)가 지난 5월 14일 당진군 합덕읍 소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은 본회 이준동 회장을 비롯해 최성갑 부회장, 이흥재 부회장 및 충남도지회 박태원 지회장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당진종계지부는 초기 충남서부지역 16명의 종계인이 친목회 모임으로 결성되어 금년초 영농법인으로 활동해 오다 지부 설립조건을 충족해 지부로 창립하게 되었다. 신현민 지부장은 “앞으로 지부회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고, 상호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뜻”을 전했다.

지부장 : 신현민

사무국장 : 박종환

감사 : 김동식, 김태일

사무실 : 충남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65-23

전 화 : 041-970-9989

아산지부

양계산물 소비촉진 행사 마련



본회 아산지부(이일용 육계지부장, 차진우 산란계지부장)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일 현충사 및 곡교천을 중심으로 열린 ‘성웅 이순신 축제’에서 양계산물

소비홍보 행사에 나서며 축제에 참가한 관람객들에게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관련기사 82페이지 참조).